

# 葛庵 李玄逸의 敬論과 이론 배경\*

장윤수\*\*

## 차례

- I. 서론
- II. 葛庵 敬論의 이론적 원천
  - 1. 朱子の 敬論
  - 2. 退溪의 敬論
- III. 葛庵 敬論의 家學的 배경
  - 1. 敬堂 張興孝의 敬論
  - 2. 石溪 李時明의 敬論
- IV. 葛庵 李玄逸의 敬論
  - 1. 葛庵의 讀書錄을 통해서 본 학문경향
  - 2. 葛庵 敬論의 이론적 특징
  - 3. 聖學의 기초로서 敬論
- V. 결론

## 【국문초록】

葛庵 李玄逸(1627~1704)은 17세기 영남학파의 최고 학자로서, 栗谷學을 비판하고 退溪學을 변증하며 嶺南 士林의 宗匠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가 남긴 文集은 이러한 사상사적 지위에 걸맞게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성리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 그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理氣四七論에 한정되고, 수양론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배움과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유학의 전통으로 보나, 退溪學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敬’의 수양론이

\* 이 논문은 2010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며 갈암이 그러한 퇴계학의嫡傳者임을 자부한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갈암의 敬論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학문경향 등으로 인해 敬에 대한 갈암의 언급이 많지 않지만, 배경 지식의 풍부함과 논리적 치밀함이 돋보인다. 갈암은 朱子-退溪의 전통 성리학적 敬論을 계승하며, 특히 그의 家學의 연원인 敬堂 張興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천하사물의 이치가 둘로 구분되지만 이 둘을 分對的인 관계로만 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敬의 공부 또한 靜時와 動時, 未發과 已發, 存養과 省察, 居敬과 涵養(窮理)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립되는 양자는 상호보완적 整合體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암은 대립을 이루는 모든 공부의 통일 근거로 敬을 해석하였으며, 마음 공부의 핵심이 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 주제어

葛庵(李玄逸), 敬, 工夫, 嶺南學派, 退溪學派

## I. 서론

葛庵 李玄逸(1627~1704)은 ‘鶴峯-敬堂學脈’이 영남학파의 주도적인 계파로 성장,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학자이다. 그는 ‘退溪學’의 수호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인물로서 栗谷의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山林政治家로서의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嶺南 士林을 대대적으로 규합하여 葛庵學團을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래 갈암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학자들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그의 사상에 대한 철학계의 연구는 주로 理氣四七論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經世論(『洪範衍義』 연구), 周易觀, 上疏文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띈다. 그렇지만 理氣四七論과 함께 성리학의 2대 구성 요소를 이루는 심성수양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退溪學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敬’의 수양론임을 고려할 때, 퇴계학의 嫡傳者임을 자부하는 갈암에 있어서도 당연히 敬의 수양이론이 중시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수양론, 특히 敬論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왜일까?1) 우선, 갈암의 시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갈암의 시대는 학문적으로 퇴계학과(영남학과)와 율곡학과(기호학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南人和 西人の 대립이 격렬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갈암은 宋時烈이 주도한 西人系列의 禮論에 대응해 남인의 입장을 결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학문적으로는 율곡학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퇴계학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조선성리학의 嫡統을 확인할 의무를 느끼고 있었다.

우선 갈암의 文集을 통해 그의 사상적 특징과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葛庵集』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시대, 한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의 문집으로서 손색이 없다. 性理學, 經世學, 禮學, 經學 등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갈암의 문집에는 疏와 그에 준하는 筭·獻議 등이 많이 있다.2) 이것은 그가 黨爭이 치열하던 시기에 비교적 오랜 기간 관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政爭에 관한 글의 필요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남 남인의 宗匠이었던 만큼 문집에 남아 있는 書信이 많다. 150인 가량의 師友·門人·子孫들과 주고받은 서신 총 360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신들에는 時事·經學·性理學·禮學 등에 관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녹아 있다. 禮學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은 그 시대가 禮訟이 첨예화 되던 시기였고, 또한 갈암의 지위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1)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葛庵의 敬論에 대한 선행연구는 全無하다.

2) 총138편이 수록됨.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리고 性理說은 갈암과 여러 학자들 간의 왕복 서신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특히 雜著에는 갈암의 성리학적 입장을 대표하는 저작들이 실려 있다. 갈암은 이러한 書信과 雜著를 통해 율곡의 학설을 비판하고 퇴계의 학설을 변증하였다. 영남 남인의 율곡학에 대한 비판은 갈암으로부터 본격화되며, 갈암학 비판의 경향은 특히 갈암의 家學과 그 門下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갈암의 문집에 남아 있는 성리이론은 주로 율곡학을 비판하고 퇴계학을 변증하기 위한 理氣心性論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갈암 성리학에 대한 연구 또한 이 분야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後學들이 갈암에 대해 “독실히 배우고 힘써 행함에 오로지 敬을 위주로 하였다.”<sup>4)</sup>라고 평가한 바처럼, 퇴계학의 嫡統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갈암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敬論은 주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며, 또한 그 자신이 평생토록 持敬의 삶을 실천하였다. 그렇다면 갈암 敬論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 글에서 우리는 갈암의 文集에 단편적으로 散在해 있는 敬에 대한 언급을 찾아 그의 敬論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갈암 敬論의 정체해명을 돕기 위해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朱子와 退溪의 敬論을 선이해할 것이며, 그리고나서 葛庵學의 근원이 되는 家學的 전통, 즉 외조부 敬堂 張興孝와 아버지 石溪 李時明의 敬論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것이다. 갈암 敬論을 직접 언급하는 章에서는 우선 讀書錄을 통해 구체적인 학문

3) 禮論에 관한 李玄逸의 書信은 李猷遠의 『安陵世典』, 柳長源의 『常變通攷』 편집의 근간이 되었다.

4) 『葛庵集』附錄, 卷5, 「祭文 : 安東鄉校」. (『국역갈암집』6권, 329쪽). 원문의 번역은 『국역갈암집』(민족문화추진회)을 따랐으며, 다만 文意가 어색하거나 誤譯인 경우에는 필자가 改譯하였다.

경향을 분석해 보고, 갈암 敬論의 이론적 특징을 분석적인 측면과 整合的 세계관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암 경론에 있어서 聖學과 君子學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 II. 葛庵 敬論의 이론적 배경

### 1. 朱子の 敬論

‘敬’의 수양론은 周濂溪가 『太極圖說』에서 ‘主靜’을 제시한 데 대해 程伊川이 ‘主敬’을 제시하면서 제기되었고, 朱子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성리학 수양이론의 중심개념이 되었다.<sup>5)</sup> 그러므로 主敬論의 선구는 주렴계의 主靜論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일찍이 주렴계는 『태극도설』에서 ‘主靜’에 관해 말하기를, “聖人是 [道를] 규정하기를 仁·義와 中·正이라고 하였으며, ‘靜’을 주로 하여 人極을 세웠다.”<sup>6)</sup>라고 하였다. 주자는 이것을 해석하여, 精은 眞實无妄한 誠을 회복하는 것이요, 本성[性]의 ‘진실된 마음’[貞]이라고 하였다.<sup>7)</sup> 그리고 정이천은 어떤 제자가 ‘敬’은 ‘靜’과 다른 것이냐고 묻자, “靜이라고 하면 불교의 설이 된다. 그래서 靜 대신에 敬을 쓰는 것일 뿐이다.”<sup>8)</sup>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정이천이 주렴계의 ‘主靜’에서 ‘靜’자를 피하여 ‘敬’자로 대체한 것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표현을 바꾼 것으로 보

5) 금장태, “『敬齋箴圖』와 퇴계의 居敬修養論”, (『퇴계학연구논총』3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7), 273쪽 참조.

6) 『聖學十圖』 「太極圖說」.

7) 『太極圖說解』: “靜者, 誠之復而性之貞也.” 참조.

8) 『二程全書』, 卷8, 『劉元承手編』.

아야 한다.<sup>9)</sup> 즉, 주립계가 주장한 ‘主靜’에서 ‘靜’은 動과 상대되는 의미의 靜이 아니라 動과 靜을 초월한 절대의 靜으로 보아야 한다.

주자는 정이천의 ‘主敬’의 사상과 ‘涵養은 반드시 敬으로써 해야 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켜서 主敬涵養說을 수립하였다. 주자의 主敬(居敬 또는 持敬)論은 크게 두 가지 의미, 즉 ‘광의’와 ‘협의’의 의미를 지닌다. 협의의 의미는, 전적으로 未發工夫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窮理致知와 상대가 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광의의 의미로는 未發과 已發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動·靜과 內·외의 과정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된다.<sup>10)</sup> 주자는 미발과 이발을 구분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발일 때의 함양공부를 강조했다. 그는 미발시의 주경을 통한 수양은 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리치지를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고 보았다.<sup>11)</sup> 물론 주자는 敬이 동·정을 관통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주경은 함양공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치지를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즉 主敬은 知와 行, 未發과 已發의 전체 과정에 관철되는 것이다.

주자는 이전의 主靜論이 주로 未發之心을 함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主靜法이 靜 일변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已發의 세계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心을 미발의 상태에 가두어 두는 수양법이라고 보아 이를 대체하는 主敬法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즉 주자의 主敬論은 靜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動의 가능성도 담고 있다. 주자에게 있어서 敬은 動·靜을 관통하고 未發과 已發을 관통하는 공부법인 것이다.<sup>12)</sup> 그러므로 王懋竑은 『朱子年

9) 오하마 아키라, 『범주로 보는 주자학』, 이형성 옮김, (예문서원, 1997), 393쪽 참조.

10) 陳來, 『宋明性理學』, 안재호 옮김, (예문서원, 1997), 259쪽 참조.

11) 陳來, 『宋明性理學』, 260-1쪽 참조.

12) 이광윤, “朱子の 心性論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46-7쪽 참조.

譜』에서 主敬論을 개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자의 학문은 窮理하여 지식을 넓히고, 스스로를 반성하여 실제적인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居敬이란 시작하고 끝내는 근거이다. 주자는 “敬으로써 致知하지 않으면 혼란되고 의혹되어 의리의 귀착처를 살필 수 없으며, 敬으로써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방자해져서 의리의 실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sup>13)</sup>

주자의 居敬涵養의 공부는 格物致知, 즉 窮理와 연계하여 최종의 목적인 豁然貫通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居敬은 어떻게 窮理와 연계될 수 있는가? 일찍이 주자는 “致知와 存養이 비록 두 가지 일이지만 그 공효는 서로 원인이 된다.”<sup>14)</sup>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涵養 중에는 스스로 窮理 공부가 있으니 곧 涵養하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窮理 가운데도 저절로 涵養工夫가 있으니 궁구하는 바의 이치를 기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sup>15)</sup>라고 하였다. 즉 그는 存心할 수 없으면 窮理할 수 없고, 窮理할 수 없으면 盡心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存心은 居敬이고, 窮理는 格物이며, 盡心은 致知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居敬은 곧 窮理를, 더 나아가서는 致知를 위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存心に 의해 心을 항상 大明한 상태로 깨어 있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卽物窮理가 가능하다 하겠다.

그렇지만 주자는 居敬과 窮理의 爲學次序에 있어서 엄연히 涵養工夫를 가장 앞에 둔다. 그래서 말하기를, “涵養·致知·力行 세 가지는 [학문을 하는 순서상] 涵養을 으뜸으로 삼고, 致知를 그 다음, 力行을 마지막으로

13) 王懋竑, 『朱子年譜』, 卷4 (商務印書館 叢書集成初編本), 231쪽.

14) 『近思錄』, 卷4, 「存養類」.

15) 『朱子語類』, 卷9, 「學三 : 論知行」.

삼는다.”<sup>16)</sup>고 하였다. 즉 주자는 학문의 순서가 居敬涵養의 공부 가장 먼저이고 그 바탕 위에서 格物致知의 窮理工夫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므로 『小學』과 『大學』의 爲學次序에 있어서도 『소학』의 涵養이 『대학』의 窮理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주자의 경론은 이후 성리학의 대표적인 수양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성리학, 그 중에서도 退溪學의 사상적 특징을 이루게 된다.

## 2. 退溪의 敬論

退溪 李滉에 있어서도 ‘敬’은 수양의 핵심이다. 퇴계는 敬이 上古時代부터 계승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李平叔(咸亨)의, “陳西山은 敬과 靜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敬과 靜을 動과 靜으로 나누어 보아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러한 敬의 전통이 堯임금 이래 있어온 것임을 주장하였다.

敬은 動과 靜을 스스로 겸하고 있으므로 靜과 상대를 시켜 動과 靜으로 나누어서는 안되네. (...) 敬을 가지고 서로 전수하는 일은 예전부터 그러하였으니, 이를테면 堯임금의 ‘欽明’, 舜임금의 ‘兢兢’, 湯王의 ‘聖敬’, 武王의 ‘敬勝’, 孔子의 ‘行篤敬’과 ‘修己以敬’이 바로 그러한 것들로서, ‘敬工夫는 動과 靜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靜을 꼭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족하다네.<sup>17)</sup>

퇴계는 聖人을 지향하는 인격형성의 출발에서부터 聖人을 성취하는 종결까지 敬의 수양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시켰다. 즉 그는 주자와 마찬가지로

16) 『朱子語類』, 卷115, 「朱子十二：訓門人三」, 『楊讓錄』.

17) 『退溪集』, 卷37, 「書：答李平叔」 세 번째 편지.

지로 儒家 전통에 따라서 ‘聖人’을 최고의 理想人間으로 보았으며, 성인이 되고자 하는 ‘君子學’의 원리를 밝히려고 하였다. 여기서 ‘君子’란 仁을 배우고, 사색하며 體認하는 사람이다. 퇴계는 仁을 체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적 원리가 바로 敬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聖學十圖』를 宣祖에게 올리는 劄子에서, “이 十圖는 모두 敬을 위주로 합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성학십도』의 ‘제9도’ 「敬齋箴圖」에서는 “敬이 聖學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퇴계 또한 주자의 경우처럼, 居敬과 窮理가 서로 머리와 꼬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상호 유기적 관계임을 밝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二元化시킬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18)</sup> 퇴계에 있어서 爲學의 목적은 理를 밝혀 理의 가치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理를 궁구하여 밝히는 것이 바로 退溪學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窮理는 理를 밝히는 공부이다. 퇴계는 窮理의 공부가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敬에 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퇴계는 居敬하면 窮理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주자의 사상과 궤를 같이 한다.

퇴계는 敬의 의미를 규정하는 네 개의 조목을 ‘主一無適’, ‘心收斂不容一物’, ‘常惺惺’, ‘整齊嚴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단서로 잡아야 할 조목은 整齊嚴肅이라고 보았다. 즉 퇴계는 整齊嚴肅을 持敬의 가장 소중한 착수점으로 보았다. 그는 일상생활상 평이한 덕목들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持敬의 단서라고 보고서 四勿<sup>19)</sup>, 三貴<sup>20)</sup>, 三

18) 『退溪集』, 卷14, 「書 : 答李叔獻」 첫 번째 편지. “惟十分勉力於窮理居敬之工, (…)  
二者, 雖相首尾, 而實是兩端工夫, 切物以分段爲憂, 惟必以互進爲法, 勿爲等待.” 참조.

19) 『論語』 「顏淵」에 근거한 것으로서, 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勿視), ‘듣지 말고’(勿聽), ‘말하지 말고’(勿言), ‘움직이지 말라’(勿動)는 것을 말한다.

20) 『論語』 「泰伯」에 근거한 것으로서, 행동거지에 있어서는 사납거나 거만함을 멀리 해야 하고, 얼굴빛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는 믿음직하게 해야 하고, 말을 함에 있

省<sup>21)</sup>, 孝悌와 같은 일상생활의 법도를 강조하였다.

퇴계는 칠십 평생을 통하여 實踐躬行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학문을 머리속으로만 탐구하는 학자 이상의 師表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퇴계의 '敬'사상은 尊理사상의 기반에서 인간의 도덕적 자아확립을 위한 工夫로 강조된 것이다. 敬에 대한 퇴계의 강조는 戊辰年에 宣祖에게 올린 上疏文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제 전하께옵서 진실로 헛된 이름이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아시고, 要法을 구하여 道學을 밝히려 하신다면, 반드시 臣이 앞에서 논한 眞知와 實踐에 관한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어, 敬으로 시작하고 敬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함에 있어서는 아는 바가 혹 어둡고 밝지 못하거나, 행하는 바가 혹 모순되어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을 지라도, 청컨대 삼가시어 이로 말미암아 함부로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聖人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다만 나의 功力이 모자랄 뿐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순서를 따라 힘쓰고 힘쓰시어 中道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sup>22)</sup>

### Ⅲ. 葛庵 敬論의 家學的 배경

#### 1. 張興孝의 敬論

敬堂 張興孝(1564~1633)는 葛庵 家學의 연원이 된다. 갈암의 門人權斗經은 갈암의 行狀에서, “선생의 家學의 연원은 敬堂 張先生에 근원하

어서는 비루하거나 어긋남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1) 『論語』 「學而」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피함이 충성치 못하였는가, 벗과 사귀는 데 믿음이 없었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였는가를 날마다 살펴야 할 세 가지 일로 보았다.

22) 『退溪集』, 卷6, 「戊辰六條疏」.

는데, 장선생은 학문의 大方을 鶴峯 金誠一, 西厓 柳成龍 두 선생에게서 얻었다. 선생의 仲兄 存齋先生이 그 실마리를 미루어 더욱 확충시켰다. 갈암선생은 資稟이 기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존재선생을 따라 琢磨하고 감화되었으니, 그 연원에 젖어든 것이 대개 이리하였다.”<sup>23)</sup>라고 하였다. 자신의 가학의 연원을 경당에로 소급하는 것은 갈암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학의 연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경당선생은 학봉과 서애 두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篤學과 力行으로 학자들의 스승이 되었다. 判書公(李時明)은 일찍부터 그 문하에 출입하여 군자의 立身行己하는 요체를 들었으며, 가정에서 가르칠 적에는 모두 옛사람의 爲己勉學하는 뜻을 가지고 하였다. 存齋先生에 이르러 마침내 그 단서를 반복하고 궁구하여 家學을 확충하였다.”<sup>24)</sup>라고 하였다. 또한 그의 仲兄인 存齋가 冠禮를 치른 뒤에 여러 선생의 문하에 나아갔지만, 마음을 보존하여 성품을 기를 줄 알고, 천하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되 精·粗와 內·外를 둘로 여기지 않은 것은 오로지 敬堂의 문하에서 발단되었다고 확인하였다.<sup>25)</sup>

여기서 ‘마음을 보존하여’(存心) ‘성품을 기를 줄 안다’(養性)라고 하는 것과 精·粗와 內·外를 둘로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敬工夫를 말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갈암 가학의 연원이 敬堂에 있으며, 그 핵심이 敬工夫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우리 경당선생의 持敬의 공부는 실로 하자가 없는 학문이었고, 그 遺風과 가르침은 後人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sup>26)</sup>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경당에게 있어서 敬工夫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3) 『葛庵集』附錄, 卷2, 「葛庵行狀」. (『국역갈암집』6권, 142-3쪽)

24) 『葛庵集』附錄, 卷4, 「先府君家傳」. (『국역갈암집』6권, 255쪽)

25) 『葛庵集』, 卷26, 「存齋行狀」. (『국역갈암집』4권, 229쪽) 참조.

26) 『葛庵集』附錄, 卷5, 「祭文 : 鏡光書院撰」. (『국역갈암집』6권, 345쪽)

경당이 敬을 중요시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敬堂’으로 號를 삼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程伊川의 뜻을 취해 堂을 ‘敬堂’이라 이름 짓고 이에 따라 自號를 삼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릇 敬이 아니면 그 길이 두세 가지로 나뉘어져 一身을 주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7)</sup>라고 하였다. 경당은 실천윤리의 이념이자 방법으로 ‘敬’을 강조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과 밖의 논리로써 ‘敬’과 ‘義’의 병행을 주장하였다. 그는 敬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사상을 끌어들이었다. 『敬堂日記』의 기록을 살펴보면, 경당은 그 스스로 평생토록 持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敬을 강조하여 가르쳤던 것이 분명하다. 『日記』에 언급되는 敬論 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밤에 꿈속에서 한 방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숙연하고 경건한 자세를 취하니, 明道先生이 동북쪽 모퉁이에 앉아 계시고 退溪先生이 그 곁에 앉아 계셨다. 중간에는 한 물건이 우뚝 세워져 있는데 敬이라 이름 하였고, 뒤편에서는 한 아이가 곁에서 시종하였다. 남쪽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형상이 벽처럼 섰는지라 ‘門’이라 이름 하였다. 다른 聖賢들도 함께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 분들이 누구인지는 꿈을 깬 후에 잊어버려 감히 억지로 기억할 수 없었다. 이 무슨 꿈인가?<sup>28)</sup>

‘敬’ 한 글자가 곧 학문의 綱領이니, 잠시라도 여기에 功을 더하여 의거할 바가 있게 하여 致知·力行的 바탕으로 삼아야 좋을 것이다.<sup>29)</sup>

마음은 고요할 때는 性을 통솔하고, 조금 움직일 때는 情을 통솔하며, 일을 할 때는 萬事·萬物의 이치를 통솔하니, 잠시라도 놓을 수 있겠는가? 마음은 잠시라도 놓아서 안 된다. 敬하면 만 가지 일이 모두 이루어지며,

27) 『敬堂集』, 卷1, 「雜著：敬堂說求記」.

28) 『敬堂日記』, 中卷, 乙卯年, 4月 26日 條.

29) 『敬堂日記』, 下卷, 辛酉年, 3月 23日 條.

敬하지 못하면 만 가지 일이 모두 폐해진다.<sup>30)</sup>

경당이 『日記』에서 단편적으로 설하고 있는 敬論은 性理學에서 통상 언급하는 敬의 네 조목, 즉 主一無適, 常惺惺, 心收斂不容一物, 整齊嚴肅과 대략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경당의 경우 특히 敬의 외적 의미인 整齊嚴肅 공부를 강조한다. 이러한 특징은 退溪의 정신과 일치한다. 退溪는 ‘바깥’을 바르게 함으로써 ‘안’을 끈게 한다는 관점에서 ‘바깥’쪽을 강조하여 敬의 네 조목 중 整齊嚴肅을 제1단계의 공부법으로 강조하였다. 整齊嚴肅하는 것이야말로 敬의 공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먼저 整齊嚴肅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오래 하면 외모가 嚴肅해지고 중심이 한결같아져서 主一無適하게 되니 心收斂不容一物하는 일이나 常惺惺이 모두 이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말이다. 退溪는 외모의 整齊嚴肅이 바로 內心을 올바르게 붙잡는 길이라고 보았다.<sup>31)</sup> 이러한 敬論이 자칫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겠으나, 下學而上達이라는 전통 유가의 공부방법론을 염두에 둔다면 그 원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경당은 거의 평생동안 성리학적 사유세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실제의 삶 또한 성리학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다. 경당의 삶은 수미일관하게 持敬의 과정이었다. 그는 평생토록 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경당에게 있어서 敬은 聖人の 삶을 회복하고 聖人の 삶을 살아가기 위한 存心養性 수양론의 핵심이었다.

30) 『敬堂日記』, 下卷, 辛酉年, 7月 2日 條.

31) 『退溪集』, 卷29, 「書 : 答金而精」 참조.

## 2. 李時明의 敬論

우리가 여기에서 石溪 李時明(1590~1674)의 입장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退溪-鶴峯-敬堂'으로 이어지는 퇴계학맥의 嫡統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하였고, 또한 그의 이러한 입장이 家學으로 전승되어 갈암 이현일과 영남 남인, 즉 경북북부지역 퇴계학파의 공식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당과 석계는 단순한 '스승-제자', '사위-장인'의 관계를 넘어선다. 석계는 경당을 추모하며 쓴 祭文에서 "門下에 데릴사위가 되어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완악함을 다스리어 날로 이룸이 있기를 바랐으니, 은혜로는父子관계와 같음인즉 어찌 師弟의 관계뿐이라 하리오."<sup>32)</sup>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후대의 학자들은 석계가 경당으로부터 心學의 도를 듣게 되었다고 기술하며,<sup>33)</sup> 석계의 家學淵源을 경당에게로 소급하였던 것이다. 석계 자신도 경당 死後에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金溪(경당의 처소가 있던 곳)의 거문고 줄이 끊어진 후로는 이 일(退溪學的 道統)들이 너희 형제들에게 맡겨졌으니"<sup>34)</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石溪行狀」에서는, "石溪가 경당을 뵈 후로는 학문의 큰 道를 듣기를 기뻐하여 믿기를 돈독히 하였는데, (...) 그는 경당 학문의 오묘함을 전수받아 광명정대한 旨訣을 자득하여 깨달았다."<sup>35)</sup>라고 하였다. 그런데 석계가 경당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하는 학문의 핵심은 바로 持敬의 삶이었다.

葛庵의 경우에는 관직에 비교적 오래 있었고, 또한 政爭의 갈등 속에서 理氣四七論의 이론적 논쟁에 대부분의 공력을 허비한 결과 심성 수양

32) 『敬堂集』, 卷2, 「祭文 : 李時明撰」.

33) 『石溪集』附錄, 卷2, 「請謚疏」 참조.

34) 『石溪集』卷3, 「書 : 答子徽逸」.

35) 『石溪集』附錄, 卷1, 「行狀」.

과 관련한 부분, 즉 敬과 관련한 언급이 많지 않다. 반면 아버지 석계의 경우에는 그 자신 출세를 멀리하고 은둔자로서 大儒의 길을 갔으며, 또한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심성수양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렇지만 그는 정교한 이론적 내용보다는 실천적이고 생활적인 면을 주로 강조했다.

석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과거공부보다는 공부의 실질, 즉 敬工夫에 힘썼다. 그는 어느 날 부친 雲嶽 李涵에게 아뢰기를,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外地에서 벼슬살이하실 동안에 저는 어떤 사람을 따라 句讀法을 배워 조금이나마 글 짓는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가짐과 행실을 다스리는 데에는 아직 어두우니 청컨대 『小學』을 배워 下學의 기초를 닦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雲嶽公이 이를 허락하자 인근 산에 들어가 종일토록 꼴꼴이 앉아 글을 읽었는데 잠시도 쉬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sup>36)</sup> 그러다가 그는 경당을 만나 敬工夫의 요체를 습득하고 이를 家學의 연원으로 삼았던 것이다.

석계는 특히 敬工夫를 자녀교육에서도 강조하였는데, 성장한 자식들에게는 옛 성현을 닮아가도록 가르쳤으며, 아직 어린 자식에게는 入孝出悌의 도리를 가르쳐서 窮理修身의 공부를 하게 했다. 비록 걸음을 걸을 때나 대답을 할 때,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을 때에도 반드시 정성과 조심스러움을 다하게 하였다.<sup>37)</sup> 석계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는 주로 공부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글인데, 맏아들 尙逸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敬의 공부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해 보도록 하자.

36) 『石溪集』附錄, 卷1, 「行狀」 참조.

37) 『石溪集』附錄, 卷1, 「行狀」 참조.

선비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거를 보아 명예를 얻기 위한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 평생의 뜻을 헛되이 포기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 방 하나를 마련하여 글을 읽고 사색하는 것으로 大儒가 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하늘이 내려준 바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sup>38)</sup>

九容과 九思의 공부에 소홀하지 말아라. 앉고 서고 길을 걷고 발걸음을 댈데도 깨끗하게 곧아야 하고 천천히 걷고 완만하게 움직여야 하며,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을 놀려서도 안되고 얼굴을 기울게 하거나 입을 선동해서도 안된다. 이런 것들은 비록 작은 예절이지만 반드시 삼가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大君子의 威儀를 갖추어 낼 수 있게 된다. 이 모두가 몸을 다스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힘쓰고 힘써야 할 것들이다.<sup>39)</sup>

근래 『中庸』을 읽다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의복을 정결히 단정하게 하여 禮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몸을 닦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의 疏에 이르기를 “이 心志를 가지런히 깨끗하게 하고 그 의복을 정결히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안과 밖을 서로 닦는 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삼가 마음을 조심하게 되더구나.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의복을 정결히 하고서 조용히 앉아 『中庸』 장구 서너 쪽을 읽었다. 눈이 어두워 비록 작은 註를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으나 大義를 찾으려 하면서 또한 조금 깨달음이 있게 되자 더위가 저절로 흠어지고 졸음도 오지 않더구나. 4-5일이 지났는데도 또한 그러했다. 대저 마음이란 잡으면 간직될 수 있고, 놓으면 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40)</sup>

그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식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처남, 즉 경당의 자제들에게도 똑 같이 행하였다.<sup>41)</sup> 현재 남아 있는 기록

38) 『石溪集』, 卷3, 「書 : 寄子尙逸」 첫 번째 편지.

39) 『石溪集』, 卷3, 「書 : 寄子尙逸」 두 번째 편지.

40) 『石溪集』, 卷3, 「書 : 寄子徽逸玄逸」.

41) 『石溪集』, 卷3, 「書 : 寄子徽逸玄逸」 참조.

만으로 敬에 대한 석계의 전문적인 식견을 추청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가 경당 문하에 있을 때 敬에 대한 이론 공부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다.

경당선생이 일찍이 문기를, “乾卦의 九二爻에서는 어찌하여 誠을 말했고, 坤卦 六二爻에서는 어찌하여 敬을 말했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公(石溪)이 대답하기를, “誠이란 가득찬 것입니다. 建의 體는 가득찬 것이므로 誠으로 말했고, 敬에는 비어있고 곧다는 뜻이 있으니 坤의 體는 비어 있으므로 敬으로써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자 경당선생이 매우 칭찬을 하였다.<sup>42)</sup>

그런데 갈암 가학의 형성과정에서 그 母夫人 張氏夫人의 영향 또한 크다. 경당의 따님인 장씨부인은 자녀를 훈육할 때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애로움과 사랑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학문적 성취를 격려하고 성인을 닮고자 하는 참공부를 고무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장씨부인이 후손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잡다한 집안 大小事와 여성 특유의 자애로운 문안 인사보다는 학문적 성취와 성인에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글이 많다.

장씨 부인 자신의 삶 또한 시종일관 持敬의 삶이었다고 할만하다. 그녀는 『烈女傳』의 警戒의 가르침을 생각하여, 과일 따위라도 모양과 색깔이 완전하고 바르지 않으면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마을에 회갑연이 있어서 친·인척이 모두 모였는데, 妓樂이 펼쳐지고 눈앞에서 處容舞와 탈춤놀이를 하였다. 부인은 마침 임신 중이어서 즉시 머리를 숙여 시선을 거두고 종일토록 눈을 들지 않았다. 경당은 이를 듣고 감탄하기를, “너는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였다. 또한 장씨부인은 집안의 여러 부녀자와 아직 冠禮를 행하지 않은 사내들에게도 반드시 옛

42) 『石溪集』附錄, 卷1, 「行狀」.

의리를 말해 주고 善으로 인도하여 의롭지 않은 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 순간도 쉬지 않았다고 한다.<sup>43)</sup> 바로 이런 면에서 후대 사람들은 장씨 부인을 女中君子<sup>44)</sup> 혹은 女中學者<sup>45)</sup>라고 불렀던 것이다.

장씨부인이 처녀시절에 지었던 시를 음미해 보면 그녀의 관심과 志向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대부분 持敬의 삶, 즉 敬工夫와 관련이 있다.

내가 聖인이 살던 시대에 나지 않았으니 (不生聖人時)  
 聖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 (不見聖人面)  
 그러나 聖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 (聖人言可聞)  
 聖인의 마음도 볼 수가 있겠네 (聖人心可見)<sup>46)</sup>

이 몸은 부모님께서 낳으신 몸이니 (身是父母身)  
 감히 이 몸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敢不敬此身)  
 이 몸을 만약 욕되게 하면 (此身如可辱)  
 이는 곧 아버지의 몸을 욕보이게 되는 것 (乃是辱親身)<sup>47)</sup>

#### IV. 葛庵 李玄逸의 敬論

##### 1. 葛庵의 讀書錄을 통해서 본 학문경향

통상 유학자들의 독서기록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의한 책의 기록을

43) 『貞夫人安東張氏實紀』, 「行實記」.

44) 『葛庵集』附錄, 卷2, 「葛庵行狀」 참조. (『국역갈암집』6권, 105쪽)

45) 『葛庵集』附錄, 卷2, 「葛庵墓誌銘」 참조. (『국역갈암집』6권, 170쪽)

46) 『貞夫人安東張氏實紀』, 「詩 : 聖人吟」.

47) 『貞夫人安東張氏實紀』, 「詩 : 敬身吟」.

‘讀書錄’이라고 칭하는데, 讀書錄이야말로 그 사람의 학문적 관심과 사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우선 「葛庵年譜」에 등장하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하여 갈암이 독서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강의했던 주요 독서록을 ‘연도별’로 재구성해 보도록 하자.

- 7세(1633년) : 『十九史略』을 배우다  
 11세(1637년) : 河圖·洛書를 공부하다  
 12세(1638년) : 『小學』을 배우다  
 13세(1639년) : 『論語』를 배우다  
 14세(1640년) : 『孫吳兵法』, 『武經七書』, 『將鑑博議』와 같은 무예에 관한 책을 읽다  
 23세(1649년) : 『書經』의 ‘冢三百度數’를 연구하다  
 26세(1652년) : 『律呂新書』를 연구하다  
 28세(1654년) : 『四書』를 읽다  
 29세(1656년) : 『中庸』을 읽다  
 32세(1658년) : 『退溪先生文集』을 읽다  
 38세(1664년) : 『朱子大全』을 읽다  
 43세(1669년) : 『中庸』을 읽다  
 49세(1675년) : 禮書를 읽고 『論語』를 깊이 음미하다  
 63세(1689년) 7월 21일 條 : 成均館과 四學의 儒生들을 깨우치는 내용 중에서, “『大學』, 『論語』, 『孟子』, 程子和 朱子の 글을 講明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 학문으로 삼고자 한다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군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64세(1690년) 8월 5일 條 : 『朱子書』 중에서 『大學講義』를 베껴 임금께 올리다  
 65세(1691년) 10월 5일 條 : 經筵에서 眞德秀의 『大學衍義』를 강의함  
 65세(1691년) 10월 11일 條 : 經筵에서 『自治通鑑綱目』의 ‘南北朝紀’를 강의함.  
 69세(1695년) : 함경도 鍾城 귀양지에서 찾아온 학생들에게 『四書』, 『朱子書節要』, 『大學或問』, 『小學』, 『家禮』 등을 가르쳤다

70세(1696년) 겨울 : 『周易』 ‘古經’을 손수 베껴 쓰다

74세(1700년) 10월 : 사방의 학생들이 문하에 넘쳤는데, 선생은 기꺼이 그 자질에 따라 가르쳐 주었다. 매번 『四書』를 입문서로 삼았으며, 특히 『論語』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간혹 다른 經書를 먼저 가르쳐 주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꾸짖기를, “학문은 四書を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간혹 儀文이나 度數에 대해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大學』과 『論語』를 익숙히 읽고 정밀하게 생각해야 道에 들어가는 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론할 때에는 반복하여 자세히 추론하여 한 구절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으니, 요컨대 모두들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하되 ‘敬을 보존하게 하고자’ 해서였다.

갈암의 독서기록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독서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한데, 특히 병법서(『孫吳兵法』, 『武經七書』, 『將鑑博議』)와 음악이론서(『律呂新書』<sup>48)</sup>)를 연구한 것이 특이하다.

둘째, 四書와 三經을 두루 독서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강의했는데, 이 중에서도 四書를 입문서로 여겼으며 특히 『論語』를 중요하게 여겼다.

셋째, 퇴계와 경당의 독서록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宋代 성리학 이론서보다는 고대 유가경전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이것은 갈암의 학문적 관심이 성리학의 사변적 논변보다는 선진유학의 實用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넷째, 성리학 이론서 중에서도 특히 存心養性의 수양을 언급하는 心學 계열의 서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퇴계는 말할 것도 없고, 경당의 경우

48) 이 책은 朱子の 제자 蔡元定의 저작인데, 품의 높낮이의 원리를 수리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에도 독서록에 『心經』, 『心經發揮』, 『心經釋疑』, 『心經附註』, 『心箴』 등이 자주 거론되나<sup>49)</sup> 갈암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섯째, 易學과 天文地理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書經』에 나오는 ‘冢三百度數’를 탐구하고 渾天儀制度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외조부 경당의 ‘一元消長圖’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으며, 經筵에서는 『周易』 강의로 이름이 높았다.

갈암 讀書錄의 특징을 종합해 볼 때, 그의 학문 경향은 일단 經世致用的인 實用學을 강조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리고 성리이론서보다는 先秦儒學의 四書三經을 강조하고, 또한 병법서, 음악이론서, 역사서, 禮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은 그가 구체현실과 관련한 학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心性修養에 관한 독서록이 드문 이유로는 이러한 개인적 학문경향 이외에도 갈암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할 수 있다. 그가 살아간 시대가 西人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또한 율곡학과의 퇴계학 비판으로 인해 영남지역 퇴계학파가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던 때였기 때문이다. 특히 갈암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관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영남 남인의 宗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침잠하여 敬의 이론을 사색하고 持敬의 삶을 실천하기에는 여건상 맞지 않았다.

그렇지만 갈암 또한 退溪學과 敬堂學의 요체가 存心養性の 敬工夫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퇴계선생께서는 堯舜이래로 (...) 서로 전한 心法의 要言과 旨訣을 손수 써서 학봉선생에게 전해주셨다. (...) 우리 외조부(張興孝)는 童子 시절부터 학봉의 문하에 나아가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 (...) 외조부께서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

49) 拙稿, “敬堂 張興孝선생과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성리학에 관한 연구”(『哲學研究』 제99집, 2006), 330-2쪽 참조.

공경히 지킨 바는 참으로 알아서 실천하고 자신의 내면에 절실한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마음에서 터득하여 행사에 옮긴 실체는 일찍이 操存·省察·孝敬·忠信의 규범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sup>50)</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敬論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이나, 성리학자로서의 삶의 모습에서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리학적 논변을 행함에 있어서는 先賢과 家學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갈암 경론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2. 葛庵 敬論의 이론적 특징

일찍이 갈암은 천하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되 精·粗와 內·外를 둘로 여기지 않은 것은 오로지 경당의 문하에서 발단되었다고 확인하였다.<sup>51)</sup> 갈암의 평가처럼, 경당은 性과 道, 四端과 七情, 形而上과 形而下, 性과 命, 陰과 陽, 精과 粗, 表와 裏 등을 整合的 시각에서 體用論의 논리로 설명하고자 애썼다. 즉 경당은 세계의 眞相을 성리학적 사유세계에서 整合的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애썼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당은 ‘無極이면서 太極’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老子的 虛는 ‘虛이면서 無이고’, 佛家の 無는 ‘無이면서 無일 뿐’이지만, 儒家의 虛는 ‘虛이면서 동시에 實이며’, 儒家의 無는 ‘無이면서 동시에 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無極이면서 太極’이라고 주장하였다.<sup>52)</sup>

경당의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종합적인 사유방식은 갈암에게 그대로 계승된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갈암의 理氣四七論 전개에 있어서 강하게

50) 『葛庵集』, 卷21, 「書外大父敬堂張公遺集後」. (『국역갈암집』3권, 334-5쪽)

51) 『葛庵集』, 卷26, 「存齋行狀」. (『국역갈암집』4권, 229쪽) 참조.

52) 『敬堂集』, 卷1, 「雜著: 無極太極有無辨」 참조. 晦齋 李彥迪을 비롯한 여타의 성리학자들에게서도 비슷한 주장이 발견된다.

표출되지만, 敬論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우선 갈암은 『書經』의 ‘惟精惟一，允執厥中’을 千古의 聖王들이 서로 전하던 心法의 요체로 보아, 후세 성현들의 많은 학설도 그 요점을 궁구해 보면 이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예로 孔子의 ‘克己復禮’, 顏子の ‘博文約禮’, 曾子·子思·孟子·程子·朱子가 말한 ‘格物致知’, ‘誠意正心’, ‘擇善固執’, ‘知言養氣’, ‘居敬窮理’, ‘講習體驗’이 모두 일맥상통하다고 보았다.<sup>53)</sup> 그의 이러한 정합적 사유방식은 분석적 사고와 더해지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갈암은 ‘惟精’과 ‘惟一’을 구분하여 惟精은 ‘知’에 속하고 惟一은 ‘行’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앞서 언급한 先賢의 사상들이 모두 知와 行으로 구분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論語』에서 말하는 博文約禮에서 博文은 惟精이고 約禮는 惟一이며, 『大學』에서 말하는 格致誠正에서 格致는 惟精이고 誠正은 惟一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擇善固執에서 擇善은 惟精이고 固執은 惟一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공부가 知이든 行이든 모두 動的인 공부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靜的인 공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惟一의 경우에는 存養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舜임금이 禹임금에게 말해 준 것은 단지 動的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sup>54)</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갈암이 『書經』에서 말하는 ‘惟一’과 性理學에서 敬의 의미로 강조하는 ‘主一’의 의미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그는 ‘主一’이란 마음이 동쪽으로 가지도 않고 서쪽으로 가지도 않으며 두 갈래로 나뉘지도 않고 세 갈래로 나뉘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반면 ‘惟一’은 善惡의 기미를 살피는 것이 이미 정밀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 확

53) 『葛庵集』, 卷4, 「疏：進君德時務六條疏」. (『국역갈암집』1권, 256) 참조.

54) 『葛庵集』, 卷17, 「書：與應中別紙」. (『국역갈암집』3권, 149-50) 참조.

고하고 일정하여 이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았다. 그는 惟精·惟一과 存養·省察은 각각 내용이 달라 文義가 서로 접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惟精과 惟一의 의미는 모두 動的 공부에 가까우며, 主一은 靜的 공부라고 보았던 것이다.<sup>55)</sup> 이러한 면에서 갈암은 惟精과 惟一의 공부에 비해 主一の 공부, 즉 敬의 공부가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면 갈암 또한 주자와 퇴계의 전통을 따라 動·靜의 공부에 있어서 靜의 공부를 좀더 강조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그 역시 주자와 퇴계의 경우처럼 결국 動·靜의 공부를 相對的이 아니라 相須的인 관계로 보아 “『大學』에서는 慎獨만 말하여 動的인 측면에서만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中庸』에 이르러 비로소 存養과 省察을 말하여 動·靜이 相須的인 관계로 양쪽 모두 힘을 쓰도록 하였다.”는 先儒의 주장에 절대 동감하였다.<sup>56)</sup> 그리고 그는, “存養에는 모름지기 敬을 사용해야 하지만, 進學은 致知에 달려 있다.”, “致知를 하되 敬에 있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존양과 성찰을 함께 강조한 것이라 보고, 주자는 이것으로써 학문의 요체를 삼았다고 하였다.<sup>57)</sup> 이러한 갈암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先儒의 학설을 원용하고 있지만, 整合的 사유에 입각한 相須論的 논리가 돋보인다.

갈암은 敬의 공부를 靜時와 動時의 공부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存養과 省察의 공부에 대비하였다. 갈암에 따르면, 省察은 動的인 측면의 공부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惟精惟一로 말해서는 안 되며, 存養은 靜的인 측면의 공부이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 예를 들면 視聽言動과 음

55) 『葛庵集』, 卷17, 「書：與應中別紙」. (『국역갈암집』3권, 151쪽) 참조.

56) 『葛庵集』, 卷17, 「書：與應中別紙」. (『국역갈암집』3권, 151쪽) 참조.

57) 『葛庵集』, 卷17, 「書：與應中別紙」. (『국역갈암집』3권, 151-2쪽) 참조.

식을 먹고 휴식하는 동안에도 모두 存養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存養을 전적으로 寂然不動의 차원으로만 귀속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sup>58)</sup> 즉, 省察을 動的 공부에, 存養을 靜的 공부에 대비시킬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原文을 통해 갈암의 생각을 좀더 들어보자.

[問] 張子の ‘六有’는 학자들에게 매우 功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에는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행함이 있다.”는 것은 省察에 해당하고, “잠간 사이에도 보존함이 있으며 설 때에도 길러짐이 있으며 밤에는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은 涵養에 해당합니까?

[答] “말에는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행함이 있다.”는 것은 動할 때의 공부이고, “잠간 사이에도 보존함이 있으며 설 때에도 길러짐이 있으며 밤에도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은 靜할 때의 공부이다. 굳이 省察과 存養으로 나눌 필요는 없네.<sup>59)</sup>

갈암은 敬의 공부에 있어서 특히 『中庸』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예로부터 聖賢이 학문의 旨訣을 授受할 때는 매번 動의 측면에서 공부하게 하였는데, 『虞書』의 惟靜惟一과 『論語』의 博文約禮와 『大學』의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과 『孟子』의 始條理, 終條理 등은 모두 動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中庸』에 와서야 비로소 戒懼와 謹獨으로 나누어 공부를 말하였는데, 이때 戒懼는 存養이고 謹獨은 省察이라고 해석하였다.<sup>60)</sup> 즉, 갈암은 敬의 공부가 存養과 省察이라는 整合的인 모습을 갖춘 것이 『中庸』에 의해서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大學』과 『中庸』을 비교 하면서, 『大學』은 省察(窮理) 일면도의 공부를 말하였으며, 『中庸』은 存養

58) 『葛庵集』, 卷17, 「書 : 與應中別紙」. (『국역갈암집』3권, 152쪽) 참조.

59) 『葛庵集』, 卷15, 「書 : 答鄭皆春昆仲(戊寅)」. (『국역갈암집』3권, 82쪽).

60) 『葛庵集』, 卷19, 「雜著 : 愁州管窺錄」. (『국역갈암집』3권, 244-5쪽) 참조.

과 省察 공부를 모두 갖추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存養 공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大學』은 省察만을 말했을 뿐이요, 存養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大學』은] 시종 省察을 위주로 하였는데, 그대는 오로지 正心을 存養의 공부라고 여기니, 잘못 살핀 것 같습니다.<sup>61)</sup>

『中庸』에 이른바 “戒愼하고 恐懼한다.”는 말은 持敬하고 存養하는 데 나아가 말한 것이지, 窮理하고 省察하는 공부를 말한 것이 아니다.<sup>62)</sup>

근자에 『朱子大全』을 보았는데, ‘論中庸首章說’에 “敬과 義를 함께 지켜 未發時에 存養하고 已發時에 省察하기 때문에 未發할 때 品節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發用한 바에 따라 본체가 卓然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先人에게 주신 말 중에 “만물이 이미 大本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고 한 말은 내력이 있다.<sup>63)</sup>

위에서 보듯 갈암은 비록 存心과 養性, 已發과 未發, 靜時와 動時의 공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였지만 그는 兩者의 관계를 分對的인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 相須關係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그는 “存心과 養性은 본디 두 가지 일이 아니다. 養性을 하는 방도는 存心に 있으며, 存心の 요체는 敬에 있다.”<sup>64)</sup>라고 하였다.

갈암은 모든 공부의 근거가 敬에 있다고 보았으며, 마음 공부의 핵심 또한 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61) 『葛庵集』, 卷15, 「書：答金載彦(甲申)別紙」. (『국역갈암집』3권, 69쪽).

62) 『葛庵集』, 卷11, 「書：答李達夫(二書)」. (『국역갈암집』2권, 296쪽).

63) 『葛庵集』, 卷10, 「書：答權亨叔別紙」. (『국역갈암집』2권, 235-6쪽)

64) 『葛庵集』, 卷23, 「碑：東岡金先生神道碑銘」. (『국역갈암집』4권, 93쪽).

### 3. 聖學의 기초로서 敬論

誠과 敬은 모두 성리학의 주요 개념인데, 이상적 인간 즉 성인이 되기 위한 聖學을 구성하는 핵심 용어이다. 당시 학자들 간에 이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는데, 갈암 또한 誠과 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내가 예전에 漢陽의 寓舍에 있을 때 한 宰臣이 와서 말하기를, “듣자니 後生 학자들이 天道가 쉬지 않는 것을 敬으로써 말할 수 있다 하더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天道는 誠으로써 말해야지 敬으로써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그 宰臣이 “학자가 말하기를, 先儒가 敬으로써 天道를 말한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하였다. 내가 응답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假借하여 비유로 끌어다 말한 것이지 참으로 敬으로써 天道를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 宰臣이 “알았소, 알았소.” 하고 돌아갔다.<sup>65)</sup>

이 일화에 따르면, 갈암은 誠을 天道에 그리고 敬을 人道에 분속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갈암은 誠을 진실무망한 성실함 자체로 해석하였고, 敬은 이러한 성실함 자체를 닦기 위한 노력의 과정 즉 공부로 본 것 같다. 그러기에 갈암은, ‘敬은 一心의 主宰이고 誠은 萬事의 始終’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敬은 말(馬)을 제어하는 재갈·고삐와 같은 도구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誠과 敬의 관계는 단절적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라고 보아 ‘敬을 주장하는 것은 곧 誠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sup>66)</sup>

갈암에게 있어서 敬論은 聖人(誠)이 되고자 하는 君子(敬)의 학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聖學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聖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한 가지 의

65) 『葛庵集』, 卷19, 「雜著 : 愁州管窺錄」. (『국역갈암집』3권, 261쪽).

66) 『葛庵集』, 卷18, 「雜著 : 權學士士範疑義」. (『국역갈암집』3권, 222-3쪽) 참조.

미는 '君王이 수행해야 할 학문'이라는 의미도 가능하다. 우선 敬論을 聖學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聖學을 다시 '君王이 수행해야 할 학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퇴계는 戊辰年에 宣祖에게 올린 上訴文에서 "敬이 聖學의 시작과 끝입니다."라고 하였으며, 갈암 또한 '임금이 지녀야 할 덕'(君德)에 관해 肅宗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私心을 버리고 天理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치를 궁구하여 정밀함을 다하고 敬에 거하여 專一함을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sup>67)</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갈암은 임금이 修身을 함에 있어 敬에 힘쓰지 않는다면, 昏昧하고 혼란해져서 마음의 밝음을 극진히 할 수 없고, 비뚤어져서 마음의 바름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계하였다.<sup>68)</sup>

갈암은 敬論에 있어서 특히 평이한 생활법도의 실천을 통한 持敬을 중시하여 整齊嚴肅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태도, 한결같이 맑은 생각, 단정한 옷차림, 엄숙한 몸가짐, 존귀한 시선, 조심스런 행동, 단정한 용모 등을 수시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공부가 곧 本源의 心法을 存養하는 持敬의 요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퇴계와 경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나, 갈암의 경우에는 이것이 敬工夫의 실천 단서일 뿐만 아니라, 옛 聖王에 이를 수 있는 君子學 즉 聖學의 단서라고까지 보았다. 그러기에 그는 임금께 올리는 글에서도 구체적인 持敬의 방도로 일상생활의 말, 생각, 행동을 조심하는 整齊嚴肅의 공부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持敬의 방도로는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그 功力을 다하는 것이니, 衣冠을 바르게 하고 視線을 존엄히 하여 그 외면을 삼가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

67) 『葛庵集』, 卷4, 「疏 : 進君德時務六條疏」. (『국역갈암집』1권, 256).

68) 『葛庵集』附錄, 卷1, 「年譜 : 戊午年(1678)3月」. (『국역갈암집』6권, 17쪽) 참조.

을 간직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그 내면을 끈게 해야 한다. 용모를 움직이지  
 暴慢함을 멀리하며 辭氣를 내되 鄙悖함을 멀리하며, 보는 것은 밝게 하고자  
 하고, 듣는 것은 총명하게 하고자 하며, 말은 충성스럽게 하고자 하고, 일은  
 공경스럽게 하고자 하여, 動·靜에 어김이 없고 表·裏가 서로 바르게 되어  
 점차로 모습의 공손함이 엄숙하다고 할 만하며, 말의 순종함이 다스릴 만하  
 며, 보는 것의 밝음이 지혜로울 만하며, 듣는 것의 총명함이 事理를 헤아릴  
 만하며, 생각함의 지혜로움이 聖스러운 만하게 된다면, 공경히[敬] 지키고  
 한결같이[一] 하는 공력이 옛 聖王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sup>69)</sup>

일찍이 퇴계는 “다만 ‘整齊嚴肅하라’, ‘위엄이 있고 조심하라’, ‘용모를  
 바르게 하라’, ‘思慮를 바로 잡아 가지런히 하라’, ‘衣冠을 바로 하라’, ‘보  
 는 시선을 尊貴하게 하라’ 등의 몇 마디 말을 깊이 숙고하면서 실제로 공  
 부하면 이른바 마음을 끈게 한다든가 主一하는 일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按配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心身이 숙연해져서 表·裏  
 가 한결같이 될 것이다.”<sup>70)</sup>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敬工夫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제자 李德弘에게 敬  
 을 설명하면서 “動과 靜을 겸하고 안과 밖을 갖춘 것으로는 程子の 이른  
 바, ‘衣冠을 바로 하고 마음을 통일하여 엄숙하고 씩씩한 자세로 속이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라고 한 교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를 마음속  
 에 깊이 새겨 다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71)</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퇴계학의 전통을 계승한 갈암은 임금께 聖學의 수련을 권청하  
 면서, ‘持敬의 방도는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그 공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의 功力을 다하는 것’이란 ‘거처할 때는  
 공손하며, 일을 할 때는 공경하며, 말은 忠信하고, 행실은 篤敬한 것’을

69) 『葛庵集』, 卷5, 「筭 : 論進德正俗育才筭(六月)」. (『국역갈암집』1권, 305쪽).

70) 『退溪集』, 卷29, 「書 : 答金而精」.

71) 『退溪先生言行錄』, 卷1, 「論持敬」.

말한다. 즉 갈암은 敬工夫라는 것이 高難하지 않고 지극히 평이하고 일상적인 데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는 성현을 닮기 바라는 일반 학자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君王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聖學으로서의 敬工夫에도 마찬가지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것이 '孔子的 家法'이며, 또한 모든 聖賢들이 단지 이 가르침을 전수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sup>72)</sup>

갈암에게 있어서 敬은 聖學의 要諦이자, 天理의 仁을 체인할 수 있는 治心法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敬工夫의 단서는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起居動作에 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功力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 VI. 결론

퇴계의 학문의 배경을 이루는 성리학 계통의 주요 저작으로 『心經』, 『性理大全』, 『朱子大全』을 들 수 있다. 『심경』이 涵養 쪽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성리대전』과 『주자대전』은 窮理 쪽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그런데 퇴계의 直傳 제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窮理보다는 涵養 쪽이 강조되었으며, 이후 퇴계학파의 학자들 특히 율곡학파와의 이론적 논쟁이 심화된 이후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외형상' 涵養보다 窮理가 강조된 느낌이 든다. 상대 학파의 이론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自派의 학문적 특징을 차별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는 涵養보다 窮理 방향의 논의

72) 『葛庵集』癸丑追補, 附錄, 「神道碑銘」. (『국역갈암집』7권, 265쪽) 참조.

7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보고서, 2004), 254쪽 참조.

가 훨씬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涵養工夫, 즉 敬의 수양론은 어느 시기할 것 없이 퇴계학파의 특징을 이루는 주요 부분이다. 퇴계학파에 있어서 敬의 수양론은 대략 한 世紀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제1기(16세기)는 퇴계의 직전 門人들이 활동하던 시대로서, 戒懼·謹篤과 存養·省察의 持敬方法이 강조된 시기이다. 趙穆, 金誠一, 柳成龍 등이 대표 학자이다. 제2기(17세기)는 誠敬·敬義·精一의 수양방법이 강조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종전의 敬의 수양방법을 한층 다양하게 전개해나가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鄭經世, 柳元之, 丁時翰 등이 대표 학자이다. 제3기(18세기)는 외형의 整齊嚴肅을 강조하고 敬의 실천과제를 확인하는 시기이다. 대표학자로는 李裁, 權相一, 李象靖 등이 있다. 제4기(19세기) 퇴계학파의 학자들은 敬의 수양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독자적인 수양론을 체계화하였다. 대표 학자로는 柳致明, 金興洛 등을 들 수가 있다.<sup>74)</sup> 그런데 敬堂 張興孝는 제2기의 학자이지만 3기의 특징에 가깝고, 갈암은 시기적으로 제2기와 3기를 공유하지만, 성격상 제3기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제3기 학자들의 경론은 기본적으로 경당-갈암의 학맥에서 그 성격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경론은 그 전개양상과 수양방법의 강조처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대별 차이를 가질 뿐, 퇴계학파의 '학파적' 특징으로서 후대 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전통 유학의 가르침에 있어서 배움과 실천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갈암 또한 유학과 성리학의 기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평생토록 노력하였다. 특히 마음 공부에 힘썼으며, 그

74) 금장태, 『퇴계학파와 理學의 전개』(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8-35쪽 참조.

중에서도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는 敬의 공부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론할 때도 반복하여 자세히 추론하여 한 구절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으니, 그 귀결은 참되게 보고 실제로 이해하며 敬으로써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sup>75)</sup> 비록 현존하는 갈암의 문집에서 敬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지만, 이것만으로써도 敬에 대한 배경 지식의 풍부함과 논리적 치밀함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갈암은 천하사물의 이치가 둘로 구분되지만 이 둘을 分對的인 두 가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공부 또한 靜時와 動時, 未發과 已發, 存養과 省察, 居敬과 涵養(窮理)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립되는 양자는 본래 두 가지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整合體를 이룬다고 보았다. 갈암은 대립을 이루는 모든 공부의 통일 근거가 敬에 있다고 보았으며, 결국 마음 공부의 핵심이 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마음 공부’를 주제로 하여 읊은 갈암의 箴言 한 편을 인용하며 ‘맺는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마음’이라는 물건은 / 텅 비어 있고 지극히 신령스러운 것 / 한 몸을 주재하고 / 온갖 조화가 이를 따라 생겨나네 / 조금만 단속을 잘못하면 / 흩어지고 치달아서 / 연못에도 빠지고 하늘로도 날아가 / 어디까지 이르는지 알 수가 없는거라 / 팔다리 耳目口鼻의 부림을 받고 / 못 外物의 침공을 받으면 / 義理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 바로 禽獸가 되고 만다네 /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 / 敬으로 지켜 잃지 말아야지 / 그工夫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는 것이지.<sup>76)</sup>

75) 『葛庵集』 附錄, 「年譜 : 庚辰年(1700)」. (『국역갈암집』6권, 96쪽) 참조.

76) 『葛庵集』, 卷22, 「箴 : 操心箴」. (『국역갈암집』4권, 53-4쪽)

## 【참고문헌】

近思錄 / 論語 / 二程全書 / 朱子大全 / 朱子語類 / 朱子年譜 / 太極圖說 / 太極圖說解

葛庵集 (李玄逸) / 敬堂日記 (張興孝) / 敬堂集 (張興孝) / 密庵集 (李栽) / 常變通攷 (柳長源) / 石溪集 (李時明) / 聖學十圖 (李滉) / 安陵世典 (李猷遠) / 貞夫人安東張氏實紀 (張桂香) / 存齋集 (李徽逸) / 退溪集 (李滉)

嶺南古文書集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2.

嶺南文集解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8.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금장대, 퇴계학과와 理 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김중문·장운수, 한국전통철학사상, 소강, 1997.

오하마 아키라, 범주로 보는 주자학, 이형성 옮김, 예문서원, 1997.

유명중, 朝鮮後記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이병도, 韓國儒學史, 아세아문화사, 1987.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임헌규,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심리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1.

陳來, 宋明性理學, 안재호 옮김, 예문서원, 1997.

현상윤, 풀어 옮긴 조선유학사, 이형성 교주, 현음사, 2003.

금장대, “『敬齋箴圖』와 퇴계의 居敬修養論”, 퇴계학보연구논총 제3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1997).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8).

박홍식, “이갈암 성리학의 조선유학사적 의의”, 哲學論叢 제12집, 영남철학회

(1996).

유권중, “葛庵의 理氣論에 관한 고찰”, 哲學論叢 제12집, 영남철학회(1996).

이광을, “朱子の 心性論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장운수, “敬堂 張興孝선생과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성리학에 관한 연구”, 哲學研究 제99집, 대한철학회(2006).

Abstract

## A Study on the Theory of Lee Hyeon-II's Gyeong

Jang, Yun-Su

Galam(葛庵) Lee Hyeon-II(李玄逸) could be considered one of leading scholars among Yongnam School in 17th century. During his time, Lee Hyeon-II criticized Yulgok scholarship and defended Toegye scholarship, acting as a vigorous representative of Yongnam School. As a corollary, Lee Hyeon-II left a legacy of many works in Confucianism with stellar academic quality.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most of previous study and research concerning Lee Hyeon-II's Confucius philosophy by and large have been confined to the realm of theory of Ri-Gi(理氣), and little has touched upon Lee Hyeon-II's theory of moral culture. This is the point in which one would find a kind of contradiction from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and Neo-Confucianism that emphasiz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 Taking this critical concern as its starting point, this study investigates Galam's theory of Gyeong(敬). Due to both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individual preference, unfortunately, few works are available in order to closely look at Galam's theory of Gyeong.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his knowledge background and embedded logic in his theory should be considered as excellent ones. Furthermore, Galam inherited theory of Gyeong from traditional Neo-Confucianism such as Chu Hsi(朱熹) and Toegye(退溪). He argued that reason of all things can be dichotomized yet this split should b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Not only does Gyeong hold the key to unify all opposed studies into one coherent study but, more importantly, it is the crux of all mind studies," as Lee Hyeon-II contended.

Key Word

Galam(Lee Hyeon-II), Gyeong, Study, Yeongnam School, Toegye School

- 논문투고일 : 2010.11.28 심사완료일 : 2011.1.27 게재결정일 : 2011.2.1